

문대통령 국정지지율 44.5%...3%p ↓

부정평가 52.2%...대부분 계층 지지층 이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0%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2019년 11월 1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 마지막 주인 13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0%포인트 내린 44.5%였다. 지난 3주 동안의 회복세가 멈춘 것이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1%p 오른 52.2%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

는 7.7%p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3.3%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주 초·중반 한반도 평화·안보, 대(對)미·일외교, 청와대와 야당의 국회 운영위원회 대립,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문제가 불거질 때는 하락했다. 또한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약,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만찬 등 개혁·통합 행보가 활발했던 주 후반 회복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 20·30대, 60대 이상층, 부산·경남(PK), 호남, 서울·충청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특히, 진보층에선 긍정평가가



소폭 내렸지만 70%대 후반을 유지한데 반해 보수층에선 부정평가가 80%선을 상회했고 중도층 역시 3주 동안의 상승세가 멈췄다.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는 38.2%, 부정평가는 59.2%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5.7%다.

조오섭 “‘김경진 발언’, 민주당 무시 모독...안하무인”

김경진 ‘무소속 출마, 당선후 입당’ 발언에 ‘반박’

내년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 출마를 준비 중인 조오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은 11일 김경진 무소속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관련 발언에 대해 “안하무인이고 오만방자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광주 시의회 기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민주당이 힘들 때는 화를 내고, 민주당을 사랑해왔던 지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9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겸허한 평가를 받은 뒤, 당선되면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입당해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당하려는 정당이 민주당이나 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아마 그럴 것 같다”고 대답했다.

또 총선 전 민주당에 입당할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민주당

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특히 강기정 정무수석이 아나 용인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 모독, 철새 정치인”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비판했다.

조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의 민주당 입당을 강기정 정무수석이 아나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당과 당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함께 한 정당으로 어느 곳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당원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정당”이라며 “김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안하무인’이고 ‘오만방자’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무소속 출마 후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입당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철새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



다.

조 전 대변인은 “개인의 정치적 유희에 따라 소속 정당이 강하면 계속 머무르고

약하면 탈당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라며 “김 의원은 실제로 과거 경력에서 보여주듯이 민주당 입당과 탈당을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광주전남에서 자유한국당이 강하다면 한국당에 입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한국 정치가 변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은 그동안 검사 출신답게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설치나 검찰개혁에 대해 민주당 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해왔다”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바라는 당원들은 철새를 심판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정동영, 김경진·이용주에 “DJ 정치 같이 하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1일 탈당한 김경진·이용주 무소속 의원을 향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돌아올 수 있다면 언제나 원칙과 통합의 정치의 길로 같이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에서 이용주나 김경진 의원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활발히 활동해서 고(故) 김대중(DJ) 대통령이 실천한 리더십을 본받는 ‘포스트 DJ’로 조명을 받은 바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그런 신에 의원들이 분열의 정치를 이기지 못하고 당을 떠나 안타깝다”며 “분열은 정치의 길이 아니다. 이합집산도 정치의 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걸은 것은 원칙과 통합의 길”이라며 “평화당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돌아올 수 있다면 언제나 원칙과 통합의 정치의 길로 같이 할 수 있길 바란다”며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1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입당식에서 심상정 대표가 입혀주는 노란 점퍼를 입고 있다.

이자스민 “같은 목소리 내줄 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정의당 이주민인권위원장 임명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손을 꼭 잡은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조용하게 응원하지 말고 큰 소리로 응원해달라”고 했다.

필리핀 출신의 이자스민 전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귀화인 국회의원이다. 지난 1998년 귀화한 뒤 결혼이주여성 봉사단체인 ‘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을 맡아 다문화가정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2011년 개봉된 영화 ‘완득이’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새누리당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최근 자유한국당을 탈당, 정의당에 입당했다.

필리핀 목소리로 입당 소감을 또박또박 밝힌 이 전 의원은 고(고)노회찬 의원이 눈시울을 붉혔던 6411번 버스를 언급했다. 6411번 버스는 새벽 첫차로 구로를 출발해 강남을 향하는 청소년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상징한다.

이 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입당식에서 “노회찬 의원이 말씀하신 6411번 버스가 지나는 구로와 대림, 영등포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며 “6411번 버스를 이용하는 이주민들의 보편적·기본적 권리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날 입당식에서 정의당 `이주민 인권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간이 풀알만 해 질만큼 걱정이 많았다”는 그는 심상정 대표의 손을 잡은 이유에 대해 “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줄 분들과 함께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심 대표의 말이 마음에 움직였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심 대표가 평소 제게 ‘우리가 데려왔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우리가 힘이 없어 데려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매서운 여의도에 다시 나간다면 이 따뜻한 손을 잡고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심상정 대표님의 손을 잡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게 결정적이었던”이라며 “2년여간 잠수를 댔는데 그때 사람들로부터 ‘(이주민 정책 관련) 나아지는 것이 없다.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이전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의원은 지역구 출마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지금 이주민 인권 특별위원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그 과정에서 (공천에 대한)당원들의 마음과 믿음을 얻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심상정 대표는 “서로 알아 있는 위치는 달랐지만 차별받는 소수자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자스민 전 의원과 늘 같은 편이라 생각했다”며 “당시에는 제가 만날 때마다 (새누리당으로 간것은)번 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농담 반 애기했지만, 한편으로는 늘 부채감을 가졌다”고 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